'다양'한 액티비티, 대학 진학에 유리할까?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대학 지원을 할 때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이것저것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액티비티를 시킨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가 상위권 대학 진학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는 미국 대학 입시가 오래전에 바뀐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우선 액티비티는 이것저것 섞어서 만드는 '짬뽕' 이 아니다. 단품이어야 한다. 이것저것 나열해서는 안 된다.

학생이 여러 액티비티를 주제가 없이 섞어서 하고 그 종류가 많을 경우 오히려 입시에 불이익을 받는다. 즉 대학은 다재다능한 학생을 더 이상 좋게 봐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단순히 한 가지 분야에 몰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학이 요구하는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

1970년대와 그 이전에는 스포츠, 음악, 지역 사회봉사 등에 뛰어난 다재다능한 학생을 입학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이러한 대학은 더 이상 없다. 몇 년 전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상위권 미국 대학들이 'Turning The Tide' 를 통해 '배려(돌봄 공통 프로젝트 만들기: Making Caring Common Project)' 를 키워드로 잡았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권장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 다른 사람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기여, 지역 사회 봉사 및 공익에 대한 참여
2. 인종, 문화 및 계층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가족 및 지역 사회 기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윤리적 참여 및 타인에 대한 기여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입학 사정관들이 관심을 보이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을 입학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Turning The Tide' 를 통해 '배려(봄 공통 프로젝트 만들기: Making Caring Common Project)' 다. 특히 MIT, 유펜, 존스홉킨스 대학은 이 '배려' 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액티비티 준비는 단순한 학업적 요소들과 달리 정답이 없고, 매우 복잡하다. 더구나 대학마다 자기들에게 맞는 학생들을 찾으려는 잣대가 다르다. 그래서 더욱더 앞서 제시한 'Making Caring Common Project' 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내용은 이렇다.

▶지역사회 봉사 참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동참, '~와 함께' 에 초점을 맞춘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경험, 미래에 대한 감사와 책임감을 키우는 봉사 참여

▶동생을 돌보거나 주요 집안일을 하거나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과 같은 가족에 대한 기여, 윤리적 책임이 있고 타인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Making Caring Common Project' 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mcc.gse.harvard.edu/reports/turning-the-tide-college-admiss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shutterstock

11학년 클래스 선택, '전략'이 필요하다

대학 입시에 있어 11학년은 가장 중요한 학년이다.

교육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즈(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12학년을 포함해서 고등학교 시기 전체를 고려하지만, 일반적으로 11학년을 가장 주목한다. 이 말은 학생들이 11학년에 특별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심이 가는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업을 다수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11학년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클래스 선택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다. 공부량이 많은 커리큘럼을 소화하며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수업 스케줄을 짤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먼저, 많은 11학년생들은 자신이 대학 수준의 커리큘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AP 수업을 수강하고 싶어할 한다. AP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대학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는데, 크레딧 인정 여부는 학생이 진학할 대학의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대학이 일부 AP 수업에 대해 크레딧을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들으려고 하는 AP 미국역사 수업에 대해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크레딧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과목에 내가 강하다면 그 수업을 듣고 AP시험을 보는 것이 좋다. 학생으로서 도전 의식이 있다는 점을 대학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본인의 열정과 강점에 맞춰 수업을 안배하는 것이다. 11학년에는 보통 학생들이 전보다 수업 선택에 있어 더 많은 옵션을 가진다. 이 때 내가 재미를 느끼는 수업, 특히 대학에서 전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야의 수업을 선택과목으로 수강할 가치가 있다.

단지 입학 사정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과목 대신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는 과목으로 방향성을 잡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저널리즘 또는 창작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내가 강하지 않은 과목은 최소한의 요구 조건에 맞춰 수강하고, 내가 흥미를 느끼는 수업들은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수강하는 것이 좋다.

또, 지나치게 혹독한 수업스케줄을 짜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커리큘럼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지쳐서 성적 관리에 실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상대적으로 내가 더 강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수업을 고르는데 초점을 맞춘다. 수업 스케줄을 짤 때는 과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과 에너지를 안배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할지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엔지니어링 전공을 고려하고 있다면, 고교에서 수학과 과학 수업을 높은 수준으로 다수 듣는 것이 좋다. 전공으로 염두에 둔 분야의 수업들은 AP로 듣는 것이 좋다. 또한 전공 관련 과목들은 내가 다니는 고교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등학교에 없다면 인근 커뮤니티 칼리지나 4년제 대학에서 수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29점	30점~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쯤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698	$2,288
Asset Limit	$15,510	$30,95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 예 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 6400643@gmail.com